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남도 논산시
- 강경지역아동센터



2019. 1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봉사활동과는 다른,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전에 했던 교육봉사는 그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방적인 활동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동안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실 교육봉사도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봤기에 어린 아이들을 대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고, 덕분에 아이들과 다양한 프로그램, 놀이 등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밝았다. 활기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체력적으로 조금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순수하고 밝은 아이들의 모습으로부터 나 또한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또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면서도 너무 행복했다.

이번 겨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봉사를 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화봉사단에 참여했지만, 봉사와 더불어 그 이상의 것들을 얻고 경험한 것 같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해서 아이들과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

이*연

강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 5일은 많은걸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우리들이 금방 떠나게 될 단기 선생님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 주었다. 강경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작은 것도 자신의 형제들, 친구들, 선생님들과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따뜻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아직도 아이들이 신나게 말을 걸어오던 순간들이 생생하다. 이번 겨울을 포함해 3번의 강경 아이들과의 경험들은 나의 일상생활 속 원동력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은 교단에 서겠다는 나의 꿈도 공고히 해주었다.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예쁜 웃음들로 더없이 행복했던 강경에서의 5일이었다.

박*경

강경중앙지역아동센터는 많은 봉사자들이 다시 찾을만큼 정말 좋은 아이들과 센터 선생님들 덕분에 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잔뜩 만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좋은 추억들을 쌓아주고자 가는 이화봉사단 활동이지만 이렇게 활동이 끝나면 정작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추억을 받아오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7~13세의 비교적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다보니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더 쉽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4박 5일이 너무나도 짧고 아쉽게 느껴져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다음에도 기회가 되어 한번 더 찾아오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완성도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해본 경험은 처음이어서 부족했지만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오전에 공부를 도와 주거나 같이 놀면서, 아이들끼리 다투는 경우도 있었고 배척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돌림 없이 놀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개입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배우는 경험이 되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많이 좋아해 줘서 다가가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봉사단으로 같이 온 친구들과 언니들 중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절반이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칭찬을 많이 하니 아이들이 더 빨리 마음을 열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터놓게 되면서 친해졌다. 그리고 칭찬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아이들과 보드게임, 체육활동, 젠가 등을 하고 놀면서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혼자 놀던 생활 습관 대신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노는 것이 색달랐다.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돕고, 같이 노는 게 예전의 익숙한 기분이 나서 좋았고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반*민

매학과 방학 동안 센터의 아이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학교 후 집이 아닌 센터로 발을 돌리는데, 강경은 이 아이들의 제 2의 집과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는 장난기가 넘치지만 때로는 진지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아이들은
매번 누구보다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모든 활동에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런 아이들을 보며 나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에 앞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강경에서의 4박 5일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고등학교 때 2년간 꾸준히 초등학생 영어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이화봉사단 활동 역시 막연히 비슷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이화봉사단 활동은 많이 다르게 느껴졌다. 먼저 아이들과 하루에 함께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좋았다. 이전의 봉사활동의 경우 갈 때 3시간 이내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가까워지기에 시간이 짧았다. 또 학업, 점수를 위한 프로그램보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긴 시간에도 아이들이 덜 지루해하고, 우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오전부터 식사시간, 오후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서투른 내 모습에도 아이들이 점차 마음을 열어주고, 표현해주어서 정말 사랑스러웠고 고마웠다.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집중하여 빛나는 눈으로 우리를 쳐다볼 때면 힘이 나고 내가 더 즐거웠던 것 같다. 아이들과 헤어질 때는 무척 아쉽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화봉사단에 지원할 때 떨어졌다가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감사했다. 이번 겨울방학에 잊지 못할 보람차고, 즐거운 추억을 만든 것 같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도 이화봉사단 활동에 참여해서 아이들과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